

불교산업의 모든 것 한자리서 만난다

2007 한국불교박람회 준비 순조...참여업체 늘어

3월 22~25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 각종 행사 풍성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열리는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불교관련 업체들이 대거 신청하는 등 대회전부터 열기가 뜨겁다. 한국불교 유류형의 컨테츠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대규모 불교 전시회인 '2007한국불교박람회'는 2007년 3월 22~25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주)제이컨벤션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찰건축 및 유지보수, 불교용품, 종단 및 단체, 전통차, 첨단포교, 불교장터 문화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을 분야별로 전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눈여겨 볼 것은 우선 참가업체 범위가 대폭 늘어나 불거리들이 충분히 겹치는 것이다.

사찰 건축의 경우 조경, 난방, 기화, 단청, 불화, 장식 등 전통예술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또한

진각종, 총지종 등 종단과 관문사 조계사 등 대형 사찰들이 참여해 다양한 방법으로 종단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찰서 만든 먹거리 및 차 무료시음회장도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즐길 수 있게 했다.

한국불교박람회는 불교계 사업체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불교사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에 치중해 왔던 것. 품질보다 영업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공격적인 마케팅 시장이 구성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알뜰알이 판매가 주를 이뤘다.

장혁 사무국장은 "지난해 처음 개최된 불교박람회에는 5만여 관람객이 찾아오는 등 기대 이상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지난해 드러났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국장은 "포교는 물론 동종 업체간의 정보교류 역할도 병행해 건전한 불교문화산업 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번 박람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불교박람회사무국측에 따르면 1차 마감에서 이미 1백여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중 농민화, 취

운향당, 원주한지, 동양직물, 향적원, 조의공영주식회사, 코스모스환보, 성중사, 천중사, (주)위디안, (주)효월, 심크로드, 양지국악사, 삼환양초, 대한명인, 천태종 관문사, 진각종, 총지종, (사)로터스웰드, 조계사 등 다수의 업체가 새롭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업체들을 위해 사무국측은 2월 28일까지 제 2차 접수신청을 받는다. 2007한국불교박람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bexpo.org)와 전화로 하면된다. (02)706-3493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2007 한국불교박람회 눈길 끄는 참여업체

■농인향당

전문성 잇는 용품과 향



농인향당의 향꽃이

농인향당은 문화예술 분야의 국악인, 조각가, 화가, 시인 도예가들 전문가들이 결성한 회사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참 공양의 의미를 되새긴 향을 연구 개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의 필요에 의해 만든 불상과 불교용품, 그리고 향을 제조 유통하는 불교용품 전문 브랜드다.

장기간의 불교성지 답사와 전문가에 의한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농인향당의 향은 심신 안정과 방향 및 불교의식 등 다양한 쓰임에 적합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원향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밀폐된 공간이나 수면시 또는 기도와 공부 시에도 안전하게 피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선향의 성형에 꼭 필요한 접착제 또한 각고의 노력 끝에 오지에서 찾아낸 접착 항목을 사용해 원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했다. (02)3663-6777, www.nihwa.com

■동양직물

승복지 자체개발 전국 유일

동양직물은 고품격 신사복지 뿐만 아니라, 종교복지(승복지)를 자체 개발해 제일모직의 첨단기술로 생산, 판매하는 전국 유일의 업체이다.

동양직물은 몇십년간 불교 의복문화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승복지 사업에도 문을 넓혀 승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스님들의 의복 품격을 고급화 하는 데 한 몫을 해오고 있다.

승복지의 등록상표로는 'paramita(바라밀다)'가 있으며, 제일모직과 우성모직 제품을 모두 견비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우성모직의 특징은 생산공정이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직접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복지는 모직, 면, 실크, 무명, 모시, 삼베, 누비 등 다양한 원료로 만들고 있다. (02)2267-1821, www.dongyangtextile.co.kr

■향적원

토종 '장맛'의 자부심



'원료는 철저한 친환경 농산물, 제조방식은 전통방문, 화학조미료와 방부제 및 색소 등은 절대 사절'. 한국 전통의 맛을 3대째 지켜오고 있는 고추장 제조 기능보유자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향적원 전통식품(고추장, 된장, 청국장)은 갈수록 잃어가는 한국 전통의 맛을 그대로 재현시켜 의미가 크다. 제조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순정에서 제일 높은 해발 280m의 고랭지 채소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조미료 및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제조기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장인정신의 노력으로 식품부분에서는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농림수산부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순창군에서 지정한 민속마을 전통고추장 품질검사에서 군수 품질보증까지 획득해 명실공히 최고의 전통 장맛을 고객에게 선사하고 있다. (06)31663-3997, www.shunchang.co.kr

■조익공영주식회사

좋은 재질의 지붕 마감재



조익공영이 개발한 지붕마감재

'지붕 공사에 관한 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한다.' 조익공영은 건물의 특징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재질의 다양한 지붕 마감재를 전문적으로 판매시공하는 회사다. 현대 건축이 요구하는 미적 감각과 기능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지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조익공영은 국내유수의 아파트, 골프장 클럽하우스, 일반주택, 공공건물, 기타 대형 건축물에 품질 높은 지붕재를 시공해 21세기 지붕문화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풀출음이 지붕재는 두 판이 풀출패 서로 맞물리게 제작된 것으로 기와가락이음의 기능성과 평이음의 미관성을 고려해 세로선이 가늘고 강하게 나타나 시공 후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준다. (02)473-2491, www.joik.co.kr

■코스모스환보

'태양광 정원등' 인기 절정

요즘 태양열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다. 기름값이 치솟는 것도 한 원인이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태양열 제품은 전자계산기나 디지털 손목시계에만 쓰였다. 하지만 요즘은 정원등, 플래시, 내비게이션은 물론 체중계, 재떨이, 공기청정기 등도 태양열을 이용한 제품이 인기다. 태양열 정원등 등을 판매하는 코스모스환보에서 소비자의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태양열 제품은 '태양광 정원등'이다. 전원이 필요 없고, 낮에 충전된 태양에너지로 밤새도록 정원을 밝혀준다. 광선수가 달렸어 해가 지면 저절로 꺼진다. 방수 기능도 갖춰져 있다. 운치가 있어 아파트 베란다의 실내 정원용으로 많이 팔린다. (03)21347-0830, www.cosmoshuanbo.com

■성중사

밀랍주조공법 독자적 기술



밀랍주조공법으로 만든 성중사 중

성중사 전매특허인 밀랍주조공법은 업계 유일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인 원광식 대표가 10여년간 독자 연구 끝에 재현해 낸 우리 전통주조기법이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이 주조기법은 완성된 범종 표면의 문양을 섬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도 우수한 최고의 범종제작 기법이다.

아울러 2005년에는 중기청 지원사업인 기술 혁신개발사업을 통해 대형범종 제작에 적합한 새로운 밀랍주조공법 개발에 성공해 5m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도 제작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범종들은 국내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 관련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 (02)733-6141, www.sungjongsae.co.kr

■천중사

견고한 종 맑은소리 '자랑'

범종, 청동불상, 탕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 조각, 육축대 등 다수의 불교 컨테츠를 만드는 불교전문업체이다. 특히 범종종 10관에서부터 대규모 종까지 제작되는 범종은 청동과 주석을 합금해 주물을 부어 주조하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관에 달하는 제주 금봉사와 대구 보광사 종이 대표적이다. 20년 넘게 장인 정신으로 일해온 송정일 대표의 피와 땀이 천중사의 제품들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031)761-3098, www.천중사.com

■(주)위디안

유골·사리봉안함 '칠고옥'



유골 및 사리봉안함 '칠고옥'.

위디안의 대표상품인 유골 및 사리봉안함 '칠고옥'은 우연하게 개발됐다. 항상 옆에서 울고웃던 가족 친지의 유해가 더운 여름이 지나 부패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심오섭 대표가 찌지않는 유골함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심대표는 오랜 연구 끝에 위생적 응급문화의 결정체인 '칠고옥'을 개발하게 됐다.

'칠고옥'은 불교의 <법화경>에서 유래한 일곱 가지 보석의 색채를 인용 화장하거나 부패한 유골까지도 초고온으로 완전 용해시켜 유골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채 구슬 또는 각종 모양으로 탄생시킨 첨단기술의 결정체이다. 자연결로에 의한 부패와 손상 및 냄새의 우려가 전혀 없어 각 가정에서도 보관 가능하다. 또한 친환경적이며, 언제든 고인의 유골을 '칠고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031)981-0271, www.칠고옥.com

■양지국악사

전통의 소리 견고한 제품



양지국악사가 제작한 단청북

양지국악사는 1991년도에 종로에 처음 국악기 전문매장을 개업한 이래 2001년 경기도 하남 시에 국악기 제작소를 마련, 각종 북과 특수 악기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또한 양지국악사에서 제작한 악기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악기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양악과 어울릴 수 있는 악기들을 다양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다. 제품으로는 장고를 비롯해 대고, 소고, 대금, 태평소, 팽가리, 징 등 20여가지가 있다. (02)3673-3442, www.yangjigukak.com

■불제대원기업

연등용 전선·청사초롱 '우수'

1989년 신심있는 불자들이 구성되어 불교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업해 '불제 연등용 전선(사찰용)'과 견전지용초, 청사초롱, 사찰용 전구를 주력제품으로 오늘날까지 꾸준한 제품개발로 생산에서 시공까지 하고 있는 불제기업체다. 특히 청으로부터 화재예방 안전과 제품의 견고한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받은 제품을 전시한다. (02)2266-2634, www.bulje.co.kr

■(주)효월

제주도 차 제조판매로 '인기'

경남 하동에서 질좋은 맛좋은 고급 야생차만을 취급하는 (주)효월은 3년전부터 제주도도 자리를 옮겨 녹차와 야생차, 화차, 떡차 등 수십종의 다양한 차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고 있다. 또한 요즘에는 고급 원목을 사용해 찻상과 차도구 등을 만들어 외국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064)792-5646, www.hyoowl.com